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강] 추일서정 (김광균): 1P
[2강] 백구야 놀라지 마라~ (김천택): 3P
백초를 다 심어도~ (작자 미상): 3P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자 미상): 3P
[3강] 해산 바가지 (박완서): 5P
[4강]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엮보다 (임방): 7P
[5강] 만선 (천승세): 9P
[6강] 연경당에서 (최순우): 11P
[7강] 곡예사 (황순원): 13P
[8강]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인훈): 16P
[9강]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19P

[수특 9p, 해설 1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A]
㉡ 길은 한 줄기 ㉢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광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을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B] [C] [D]

- 김광균, 「추일서정」 -

[24001-0001]

1.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A]는 이국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를 활용하여 소재로부터 연상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 (2) [B]는 대비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에 따른 자연의 변화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3) [C]는 자연물을 이질적인 소재와 연관 짓는 방법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4) [D]는 공감각적 심상과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행위에 담긴 정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4001-0002]

2. 다음은 윗글의 표현 방식과 그 효과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시구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이 시는 적막한 가을 풍경을 그려 내는 데에 동원한 소재들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_____ ㉠ _____’(이)라는 시행은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야수의 모습을 환기하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_____

[24001-0003]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원관념을 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이다. 직유(直喩)는 주로 ‘~같이, ~처럼, ~듯이’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 간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한편, 대개 ‘A는 B(이다.)’ 또는 ‘A의 B’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은유(隱喩)는 문맥상의 암시를 바탕으로 비유적 의미를 전달한다. 시에서 비유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환기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 기교인데, 「추일서정」은 참신하고 개성적인 비유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

- ① ㉠은 외형적 유사성이 있는 ‘낙엽’과 ‘지폐’를, ‘A는 B(이다.)’의 형식을 사용해 연결한 은유로, 발행 주체가 ‘망명정부’임을 고려하면 대상의 쓸모없음을 함의하는 표현인 것 같군.
- ② ㉡은 원관념 ‘길’을 보조 관념 ‘한 줄기’에 빗댄 ‘A는 B(이다.)’ 형식의 은유로, 이어진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을 환기하여 화자에게는 현 상황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문맥상의 암시를 전달하려는 표현인 것 같군.
- ③ ㉢은 조사 ‘처럼’을 사용하여 보조 관념인 ‘구겨진 넥타이’와 원관념을 연결한 직유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인 것 같군.
- ④ ㉣은 원관념 ‘일광’을 보조 관념 ‘폭포’에 빗댄 ‘A의 B’ 형식의 은유로, 가을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군.
- ⑤ ㉤은 가을날의 ‘풍경’을 ‘장막’의 모습에 빗댄 ‘A의 B’ 형식의 은유로, 화자가 바라본 공간의 풍경을 마치 평면에 투사되거나 그려진 것인 듯이 형상화한 표현인 것 같군.

[수특 12p, 해설 2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구(白鷗)야 놀라지 마라 너 잠을 내 아니로다
성상(聖上)*이 버리시니 갈 곳 없어 예 왔노라
이제는 찾을 이 없으니 너를 좇아 놀리라
- 김천택 -

* 성상: 임금.

(나)
백초(百草)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
젓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이 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 심을 줄이 있으랴
- 작자 미상 -

* 젓대: 가로로 붙게 되어 있는 관악기인 '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살대: 화살의 몸을 이루는 대.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랴
미운 입 오면은 꼬리를 뒤흔 치며 치똥락 내리똥락 반겨
서 내딛고 고운 입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랴
캉캉 짓어서 돌아가게 한다
썩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 작자 미상 -

[24001-0004]

1. <보기>의 ㉠~㉡이 (가), (나)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설명 내용	(가)	(나)
㉠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	설의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24001-0005]

2. (다)의 종장을 <보기>와 같이 고쳐 썼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튿날 문밖에 개 사육세 외치는 장사 가거들랑 찬찬 동여
내어 주리라

- ① 고운 입을 만날 때까지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더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보여 준다.
- ② 알미운 존재가 욕구 결핍을 겪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③ 고운 입을 만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알미운 개 대신 고운 입에게 전가하는 반전을 보여 준다.
- ④ 고운 입과 미운 입을 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비장한 표현 대신 해학적 표현을 통해 대비적으로 보여 준다.
- ⑤ 미운 입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데 대한 원망을 한층 더 과장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실감나게 보여 준다.

[24001-0006]

3.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심리적 방어 기제는 자아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뜻한다. 방어 기제는 자아와 외부 조건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적응하도록 하여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문제 사태에 대한 관점만을 바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문학적 발상의 실마리로 활용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성상이 버리'신 낭패스러운 상황을 백구를 '좨아 놀'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함으로써 그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성상'에게 되돌아가는 일과 비교하여 '백구'와 더불어 노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울고 가고 그리는' 이별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당사자의 관계 대신 대나무를 심은 데서 찾음으로써 이별 상황에서 오는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군.
- ④ (다)가 '고운 입'을 둔 채 부득이 '미운 입'을 만나는 상황에 대한 변명이라면, 화자는 그 책임을 개에게 미룸으로써 자신과 외부 조건 사이에서 오는 갈등에 적응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다)가 화자 자신을 안 만나고 '돌아가'는 '고운 입'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면, 화자는 그 문제 사태의 책임이 '입'이 아니라 알미운 개에게 있다는 관점을 취함으로써 감정적 상처를 다스리고 있군.

[수특 15p, 해설 3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헛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 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순제 치지도의* 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 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구 대견해라 일찌거니 농사 잘 지었구나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 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걸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 되는 대화 내용이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 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두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 할까 봐 그러세요. 진지안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즐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뉘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커진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이 되어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고자 하고, 남편과 함께 시설을 찾아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간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달랠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뇨, 당신 술안주 하세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뒤 터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 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똥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 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 처럼 괴어 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났을 때 시어머니는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선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얀 젓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켕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를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

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명령은 여전히 해피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 박완서, 「해산 바가지」 -

- * 치지도외(置之度外): 내버려두고 문제 삼지 않음.
- * 기화(奇貨):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그런 기회.

[24001-0007]

1. [A]와 [B]의 서술상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서술자의 주관은 노출하지 않고 사건을 제시하고 있고 [B]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논평이 제시되어 있다.
- ④ [A]는 특정 인물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서술하고 있고 [B]는 서술자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서술자의 목소리로 직접 사건을 전달하고 있고 [B]는 주로 등장인물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24001-0008]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십시오.

- (1) 시어머님은 ‘나’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였다.()
- (2) ‘나’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조카를 통해 알게 되었다.()
- (3) ‘나’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에 육체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힘들어했다.()

[24001-0009]

3. 윗글의 ‘나’가 <보기>의 밑줄 친 ‘잘못’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이 작품에서 ‘나’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로 인해 피로함과 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맡길 시설을 찾아가는 길에 해산 바가지로 쓰기에 좋을 ‘박’을 보고, 과거 자신의 해산을 정성껏 돌봤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수특 19p, 해설 3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관기인 자란(옥소선)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며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사내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면 아비라 해도 자식더러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순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네가 그 애와 함께 지냈다면 혼인하는 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는구나.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니, 네가 만약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이 앞길에 방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네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거라.”

그러자 아들은 즉시 대답하였다.

“아버님께서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기생 계집 하나와 헤어지기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짚신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어찌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관찰사와 부인은 기뻐다.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행은 떠나게 되었다. 자란은 눈물을 삼키며 목이 메어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으나, 생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감영 안의 관속(官屬)과 비장(裨將)들은 그의 남다른 의연함에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와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 5, 6년이고 그동안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평양 감사직을 마치고 대사헌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런 즈음 감시과(監試科)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다가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 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생 끝에 평양에 도착한 생은 예전에 알던 구실아치를 통해 신임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만난 후 둘이서 멀리 도망가서 정착하여 산다. 어느 날 생은 자란의 권유로 3년간 과거 공부에 전념한다.

이때 마침 나라에서 알성과(調聖科)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란은 마침내 건량(乾糧)을 준비하고 여행 준비를 단단히 하여 생에게 과거를 치러 떠나라고 하였다. 생은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성균관의 과장(科場)으로 들어갔다. 어가(御駕)가 친히 행차하여 표제를 내었다. 표제를 받은 생은 샘솟듯 하는 생각을 일필휘지로 금세 다 써서 제출하고 나왔다. 방이 나오고 임금이 어좌에서 뜯어보게 하였더니, 장원은 생이었다. 생의 아버지는 이조 판서로서 어담 앞에 입시해 있었다. 임금은 이조 판서를 불러서 물었다.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헌’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이고?”

그러면서 시지(試紙)를 꺼내 이조 판서에게 보여 주도록 하였다. 생의 아버지는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다.

“이자는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끝내 찾을 수 없었나이다. 필시 맹수에 물려 죽었거니 하고 절 뒤편에다 허장을 쓰고 지금은 이미 탈상을 마쳤나이다. 신에게는 다른 자식은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사옵니다. 천만뜻밖에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지금 이 시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람되게도 대사헌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디서 살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나이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생을 불러들여 인견(引見)하였다.

- 임방,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

[24001-0010]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의 부모는 생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 넘어갔다.
- ② 생은 한밤중임에도 밝은 달빛에 의지하여 산사를 떠나 밤길을 나섰다.
- ③ 생은 아버지와 헤어져 있는 동안 아버지가 이조 판서가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 ④ 임금은 생이 아버지의 직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 ⑤ 생의 아버지는 시지의 필적을 보고 아들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24001-0011]

2. <보기>는 ‘생’의 인물됨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고, 맥락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 기>—

이 이야기에서 ‘생’은 다면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가까이 지낸 여인과 헤어지는 일을 ‘(㉠)’을/를 버리는 일에 빚댄다는 점에서 야멸찬 성격을 보여 주는 한편, 그리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안온한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 가치를 숭상하는 인물이다.

㉠: _____

㉡: _____

[24001-0012]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고쳐 쓰고자 한다. 고쳐 쓰기 계획에서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 기>—

「눈을 흘며 옥소선을 엿보다」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야담은 본격적인 소설에 비해 인물의 심리를 포함한 서사적 상황을 단순화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야담의 편찬자들은 ㉠ 서사적 상황의 입체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윤색하기도 하였다.

고쳐 쓰기 계획

▶ 자란과 냉정하게 이별하는 생을 의연하다고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생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언급한다면 ㉠와 같은 효과가 있겠어.

▶ 생이 과장에 들어갔을 때 후지나 하고 아버지를 찾는 장면을 추가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불효를 염두에 둔 채 (㉡) 마음에 긴장된 표정을 묘사한다면 ㉠와 같은 효과가 있겠어.

㉠: _____

㉡: _____

[수특 23p, 해설 4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곰치는 선주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고 아들 도삼과 딸 슬슬이의 애인 연철과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지만 풍랑에 배가 뒤집히고 곰치만 겨우 구조되어 돌아온다.

어부 A: 한나절 되도록 제대로 고기 잡은 배는 없었어! 돛이 뒹여? 돛대가 부러질 듯 바람을 타는 판에 배는 뒤집어질 것같이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기 잡기는 다 틀렸다고 배를 돌릴 때였든갑만! 그때 처음으로 곰치 배를 봤네!

구포덕: (다급하게) 그래서라우?

어부 A: (기가 맥히다는 듯) 아, 그란디 이 곰치 놈 좀 보게! 글씨 쌍뚝을 달고는 부서 때를 쫓아 한정 없이 깊이만 백혀 든다마시!

성삼: 믁, 뭇이라고? 쌍뚝?

구포덕: 시상에! 믁, 믁 일이끄나!

슬슬이: (곰치를 측은하게 바라보다 말고, 곰치 곁에 가서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한다.)

어부 B: 아암! 꼭 자동차같이 미끄러져 백히는디 아무리 돛 내리라고 소락때기를 쳐야 곰치란 놈은 뉘 집 개가 짖나 하고는 들은 신청도 않데!

구포덕: 아니, 눈이 뒤집혀도 분수가 있제, 그랄 수가 있을 끄라우?

성삼: 미친놈!!

어부 B: 하다하다 못 하겠어서 우리도 곰치를 따라갔지 뭔가? 쌍뚝단배하고 우리 배하고 같어? 따라가다 못 하겠어서 우리는 그냥 되돌아와서 바람 안 타는 동구섬 앞에다 그물 놓고 주저앉았제! 저녁나절까지 그물 담겼든가?…… (기가 맥히다는 듯) 아, 그러다가 봉께는 믁 배 한 척이 팔랑개비 같이 놈시러 떠밀리는 것이 멀리 뵈데!

성삼: (곰치를 멀거니 쳐다보며) 쫓쫓! 미친놈, 열두 불로 미친노음. (다시 어부 A, B에게) 그래서?

구포덕: 시상에 으짜꼬! 그 배가 바로 저 낭반 배구먼?

슬슬이: 으째사 쓰꼬!

어부 A: 여복 있오? 저놈 배제……그래도 그때는 돛을 내렸드만…… 배 노는 것이 첫눈에 만선이여…….

성삼: ㉠ (신음처럼) 만선……!

구포덕: (간이 타게) 그랬는디?!

어부 B: (비통하게) 오리 물길도 못 저어 갔지라우! (손바닥을 뒤집으며) 그냥 팔딱 해 버립디다!

구포덕: 음매 으짜꼬! (마루를 텅텅 쳐 대며) 시상에! 시상에!

슬슬이: (황급히 구포덕을 부축하며) 엄니이!

어부 A: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놈 건지느라고…… (비통하게) 후유—.

어부 B: ㉡ 그나저나 곰치 저놈 지독한 놈이여! 그 산채 같은

물결 속에서 장작 쪽만 한 나무판자 하나 딱 보듬고는 그 통에도 호령이지! 곰치는 안 죽네, 느그 아니어도 곰치는 사네! 이람시러는…… (처절하게) 그나저나 뱃놈 한세상은 너머나 드러워! 개 목숨만도 못한 놈의 숨줄! (침을 뱉으며) 이고 더러워!

구포덕: (바싹 다가앉으며) 그람 우리 도삼이는 은제 건졌오? 예에?

어부 A: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부 B와 성삼의 눈치만 살핀다.)

성삼: (절규하듯) 그, 다음은 말하지 말어! 말하지 말어!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안 돼! 말해서는 안 돼—.

슬슬이: (용수철 튀듯 일어서며 목석처럼 움직일 줄을 모른다.)

곰치: (몸뚱이를 한두 번 뒤적거리며) 내, 내 부, 부서…… 부, 부서 으디 갔어어!

성삼: (우악스럽게 곰치를 잡아 흔들며) 이놈! 이놈 곰치야? (처절하게) 말을 해! 정신을 채리고 말을 해!

구포덕: (미친 사람처럼 어부 A에게) 우리 도삼이는? 예에? (어부 B에게 매달리며 비명처럼) 예에? 우리 도삼이는?

어부 B: ㉢ 모, 못 봤지라우?

구포덕: (정신이 나가 기절할 듯) 믁, 뭇이라고?

슬슬이: (황급히 구포덕을 부축하며) 오빠! 오빠! (흐느낀다.)

구포덕: (실성한 사람처럼) 뭇이여? 뭇이여?

어부 A: (울먹이는 소리로) 도삼이도, 연철이도 다 다아 못 봤지라우!

슬슬이: 아아! 아아! (점점 심한 오열로 변해 간다.)

구포덕: (칼날처럼 날카롭게) 뭇이여? 내 도삼이를 못 봐?

어부 A, B 머뭇머뭇 망설이며 안절부절못하다가 도망치듯 퇴장. 몸을 뒤치든 곰치, 별안간 벌떡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곰치: (미친 사람처럼) 내 부서! 부서! 으디 갔어? 응? (미친 듯이 마당에 내려선다.) 아니 배가 터지는 만선이었는데 내 부서! 부서는 으디 갔어!

(중략)

성삼: (어리둥절해서) 아니, 갑자기 믁 일인가?

곰치: (통명스럽게) 내버려워!

성삼: ㉣ 얼굴이 사색인디?

곰치: 미친것! 흥! 곰치는 안 죽어! 내가 죽나 봐라!

성삼: 자네 그 소리 좀 고만허게! 아짐씨도 오죽허면 저래? 시상에 한나 남은 도삼이까지 물속에다 처박었으니…… (손바닥을 털며) 말이 아니여!

곰치: 일일이 눈물 쏟음시러 살려면 한정 없어! 뱃놈은 어차피 물속에 달린 목숨이여!

성삼: 자네도 그만 고집 버릴 때도 됐어!

곰치: (불만스럽게) 고집?

성삼: (뭇을 박아) 아니고 뭇인가?

곰치: (뭇뭇이 서선) 나는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다! 뱃놈은 그렇게 살아사 쓰는 것이여! 누구는 아들 잃고 춤춘다냐? (무겁게)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이 곰치 썩는 속은 아무도

몰라…… (회상에 잠기며) 내 조부님이 그러셨어, 만선이 아니면 노 잡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 만선 될 고기 때는 파도가 집채 같어도 쌍돛 달고 쫓아가라 하셨어! (쓸쓸하게) 내 형제 위로 셋, 아래로 한나 남은 동생 놔마져 죽고 말았제…… 어…… (허탈하게) 독으로 안 살면 으찌게 살어?

성삼: ㉔ 그래, 조부님이나 춘부장 말씀대로만 하실 참인가?

곰치: (단호하게) 내일이라도 당장 배 탈 참이다! 흥! 임 영감 배 아니면 탈 배 없어?

성삼: 도삼이 생각도 안 나서?

곰치: (격하게) 시끄러! (침착하게) 또 있어! 아들은 또 있어…….

성삼: 갓난쟁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후유 — 지독한 놈!

곰치: …… 그놈도…… 그놈도…… 열 살만 목으면 그물 말어…….

- 천승세, 「만선」 -

[24001-0015]

3. <보기>와 윗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제목에 내포된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보 기>—

이 작품은 자신의 욕망을 좇는 한 어부의 삶을 통해 다양한 갈등과 좌절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인물의 욕망과 현실의 결과가 반대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적 구조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제목인 ‘만선’을 통해 잘 드러난다.

[24001-0013]

1. ㉔~㉖의 연기에 대해 윗글을 공연하려는 연출자가 배우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곰치가 만선했다는 사실에 시기심을 느끼듯 연기해 주세요.
- ② ㉕: 곰치의 용기와 능력을 부러워하는 듯이 연기해 주세요.
- ③ ㉖: 난처한 질문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연기해 주세요.
- ④ ㉔: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알려 주듯 연기해 주세요.
- ⑤ ㉖: 상대가 내릴 결정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듯 연기해 주세요.

[24001-0014]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어부 A는 바다에 빠진 곰치를 구조해 내었다. ……………()
- (2) 곰치는 아들 도삼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 (3) 구포택은 도삼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

[수특 27p, 해설 5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연경당 넓은 대청에 걸터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턱없이 아름다워만 보인다.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때를 활짝 벗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 앞에 마주 서면, 아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세상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어딘가 거추장스러운 위엄이나 호사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궁원다운 요염**이 깃들일 성도 싶지만 연경당에는 도무지 그러한 티가 없다. 다만 그다지 넓지도 크지도 않은 조촐한 서재 차림의 큰 사랑채 하나가 조용하고 밝은 뜰에 감싸여 이미 태곳적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수다스러운 공포도 단청도 그리고 주책없는 니스 칠도, 일체 속악한 것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이다.

[B] 다만 미끈한 굴도리* 팔작집*에 알맞은 방주*, 간결한 격자 덧문과 용자(用字) 미단이, 그리고 순후하게 다듬어진 화장석 댕돌들의 부드러운 감각이 조화되어서 이 건물 전체의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 주고 있는 듯싶다.

정면 여섯 칸, 측면 두 칸의 큼직한 이 남향판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면 동에는 석주를 세운 높직한 마루방, 서에는 주실인 널찍한 장판방, 서재가 있어서 복도를 거치면 안채로 통하게 된다. 지금은 모두 빈 방이 되었지만 보료와 의자 등속, 그리고 문갑·연상·사방탁자·책탁자·수로 같은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이 장판방에 걸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지금, 아마 그만큼 반실이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 연경당이 세워진 것은 순조 28년(1828)이다. 이 무렵은 추사 선생이 40대에 갓 들어선 창창한 시절이었고, 바야흐로 지식인 사회는 주택의 세련과 문방 정취에 신경을 쓰던 시대였으니, 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이만저만한 만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C] 으레 지내보면 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다. 어찌다가 가을 소리 빗소리에 낙엽이 축축이 젖는 하오, 인적도 새소리도 끊긴 비원을 찾으면 빈 숲을 등진 연경당은 마치 젊은 미망인처럼 담담하고 외롭다. 알맞게 무겁고 미끄러운 기와지붕의 곡선,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이 그의 지붕 밑에 배꽃처럼 소박하고 무던한 한국의 마음씨들을 감싸안고 있다. 밝고 은은한 창과 창살엔 쾌적한 비율이 깃을 드리웠고 장대(壯大)나 화미(華美) 따위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질소(質素)의 미덕이 시새움도 없이 여러 궁전들과 함께 가을비를 맞는다.

자연에서 번져 와서 자연 속으로 이어진 것 같은 이 연경당의 고요 속엔 아마도 가을의 정기가 주름을 잡는 것일까. 낙엽을 밟고 뜰 앞에 서면 누구의 슬픔인지도 모를 적요가 나를 엄습해 온다. 춘녀사 추사비(春女思秋士悲)라 했는데 나

의 이 슬픔은 아마도 뜻을 못 이룬 한 범부의 쓸쓸한 눈물일 수만 있을 것인가.

나는 가끔 이 연경당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공상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곧잘 나의 평생 소원은 연경당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담겨 보는 것이라는 농담을 해 본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숨김없는 나의 현실적인 소망이면서도 또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전한 꿈이기도 하다. 세상에 진정 잊을 수 없는 연인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마 세상에는 정말 못 잊을 집도 다시 있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 육간대청에 스란치마를 끌고 싶었던 심정과 그 밝고 조용한 서재의 창가에서 책장을 부스럭이고 싶은 심정이 이제 모두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나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연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연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과 한국 사람이 낳은 조형 문화 중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온 이 주택 문화처럼 실감나게 한국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또 없고, 그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바로 이 연경당인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세련시켜 온 한국의 주택 2천 년 역사는 아마도 **이 아름다운 결정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부문의 미술도 그러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주택은 한층 한국적인 양식을 갖추게 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움이 마치 한국인의 체취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되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한국에는 문명개화의 구호와 함께 밀려든 어중간한 왜식·양식의 생활 양식이 분별없이 스며들어 오면서부터 아름다운 조선의 주택 문화는 발육을 멈춘 것이다.

추한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는 행패 속에 얼마 안 남은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물론 세계의 각 지역 간에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서 오로지 주택 문화만은 고격을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는 우리 민족처럼 틀이 잡힌 문화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D] 우리의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당당한 관록을 보여 왔듯이 우리의 조선 시대 주택은 우리 민족이 쌓아 온 생활 문화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선 주택은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한국미의 요소를 담뱃 지니고 있다. 이 고유한 한국 주택의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현대 주택에 충분히 도입되어야 하고, 또 뛰어난 재래 주택들은 살아 있는 민족 문화재로서 길이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중략)

조선의 주택,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랑채의 효

용과 그 평면의 묘에 있다. 이 연경당이야말로 서재풍으로 된 가장 전형적인 큰 사랑채 하나의 부분으로는 절묘한 작품이라고 해야겠다. 동쪽 뜰 기슭으로 **선향재**라는 나지막한 서고를 거느렸고, 또 이 선향재의 뒤 언덕 위에는 난간을 두른 아기자기한 단칸 정자 **농수정**을 둔 것은 담담하기만 한 이 연경당의 분위기에 한 가닥의 풍류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까. 어쨌든 **설계자**는 이 연경당 한 채가 주위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연경당을 설계하고 감역한 건축가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뛰어난 건축가의 심미안에도 뒤설 수 없는 멋진 눈의 주인공들을 적잖게 가졌던 것을 자랑해야겠다.

한국미의 증징, 그리고 한국미의 주체, 이것은 에누리 없이 우리 조선 주택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목조 건축의 전통이 2천 년 전 한족의 중국 문화에서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주택은 벌써 제 발걸음을 한 지 오래인 것이다.

[E]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미술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아들딸들이 자라났다. 연경당, 이것은 우리 주택 문화의 영원한 상징이 아닐 수 없다.

- 최순우, 「연경당에서」 -

- * 굴도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로 둥근 모양을 한 것.
- * 팔작(八作)집: 네 귀에 모두 추녀를 달아 지은 집.
- * 방주(方柱): 네모진 기둥.

[24001-0016]

1.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십시오.

- (1) [A]: 색채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건축물이 지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2) [B]: 축약적 이미지와 열거를 통해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 (3) [C]: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과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건축물이 환기하는 수수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4) [D]: 함축적인 어구와 당위적인 진술을 통해 한국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5) [E]: 역설적인 표현과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한국 건축이 지닌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24001-0017]

2. 연경당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연경당'이 궁궐에 속해 있지만 '궁원다운 요염'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② 글쓴이는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남아 있었다면 '연경당'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였을 것이라 여긴다.
- ③ 글쓴이는 '연경당'을 소유하여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다짐한다.
- ④ 글쓴이는 '이 아름다운 결정체'라는 표현을 통해 '연경당'이 한국의 개성을 가장 세련되게 보여 주는 건축 문화재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⑤ 글쓴이는 '설계자'가 의도한 바에 맞게 '연경당' 주위의 '선향재'와 '농수정'이 배치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24001-0018]

3.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8어절의 구절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이 작품에는 전통 건축에 대한 글쓴이의 체험과 사유의 과정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연경당이 자신에게 주는 느낌과 함께 전통 건축물로서 연경당이 가지는 가치를 서술한다. 나아가서 전통 건축이 우리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을 돌아보며 ㉠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다.

[수특 32p, 해설 6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밖에서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았다가 대뜸 근심스런 어조로, 좀 전에 이 댁 노파가 나와 이 방을 비워 달라더라고 한다. 이유는 이제 구공탄을 들이는데 이 방(실은 헛간)을 사용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 댁 식모에게 들은 말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아까 낮에 예의 노파 한 패가 몰려왔는데, 그중 한 노파가 이쪽 뜰 구석 다복술 뒤에 감춘 거적덮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런 때는 늙어서 눈 안 어두운 것도 탈이었다. 그게 무엇인가 싶어 가까이 가 들여다보고는 핵 고개를 돌리며, 애틀! 대체 이런 데다 뒷간을 만들다니 될 말인가. 그 달음으로 이 댁 노파에게, 정원에다 그런 변소를 내다니 아우님도 환장을 했는지요? 여기서 주인 노파도 한바탕, **거지 떼**란 할 수 없다 느니,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냐느니, 자기네 집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닌 바에 당장 내보내고 말아야겠다는느니, 야단법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아내한테 나와 **㉠ 방**을 비워 줘야겠다는 영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 노파가 우리한테 나와서는 거기다 뒷간을 만들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은 못 하고, 이제 구공탄을 들이게 됐으니 방을 비워 줘야겠다고 한 것이었다.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봐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노파 자신이 우리들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거기다 거적덮을 치게끔 분부를 해 놓았으니, 진드기 아닌 우리가 오줌똥 안 놀 수는 없고, 실로 면목이 없는 행실이나 거기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들어 있는 곳이 실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라, 구공탄이나 들일 **㉡ 헛간**이라는 걸 밝혀 준 점에서.

이쯤 되어, 변호사 댁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는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수삼차, 드디어 삼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러 내려오게**까지 되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부산 피난 생활에서도 ‘나’와 가족들은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급한 대로 처제의 방에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곳에서의 사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결국 대구에서처럼 방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나’와 아내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내가 이리로 옮겨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어쩌면 주인댁에서 타협을 받아 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정을 해 보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갈 방세의 금액이 문제였는데, 이만 원, 삼만 원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사만 원으로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 방세 오만 원씩을 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들리는 말에 다다미 한 장에 만 원씩이란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 달라는 수가 비일비재란 말이 있는 데다,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영감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상이나 여관으로 쫓겨 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라,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후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 나갈 변통을 하는 게 나를 성심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갖고 국제 시장으로 나가고, 큰애 들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오만 원도 아내의 장삿돈에서 떼어 낸 돈이었다.

안방에 들어갔다 좀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됐다 보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 달란다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다미 여덟 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 달라더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더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티**하겠다는 것도 못 하고 있단다는 것이다. 나는 간이 서늘해 움을 느꼈다. 금 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 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그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그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 하루를 보낸다. 이곳 피난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 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 시장엘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버티고 섰다. 이 댁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딸은 사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 와 자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의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티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그러는데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랄 것 없이, 이삼일 내로 만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가 버렸다. 그 시선들이 **떨시에 찬 눈초리**였던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의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달린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응접실 앞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지를 매만져 주고 있다.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조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 황순원, 「곡예사」 -

[24001-0019]

1. ㉠,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표면적으로 다른 의미이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공간은 동일하다.
- ② ㉠을 ㉡로 쓰겠다는 것은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노파가 내세운 구실이다.
- ③ ㉠은 현재 ‘나’와 가족들이 거처하는 공간이지만, 실은 ㉡의 용도로서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은 아니다.
- ④ ㉡와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로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나’와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 ⑤ ㉡로 쓰고자 ㉠을 비워 달라는 요구가 생존에 불가피했던 것임을 ‘나’는 대구를 떠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24001-0020]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곡예사」는 6·25 전쟁 당시 작가가 직접 겪은 대구와 부산에서의 피난살이의 경험을 자전적 서사 형식을 통해 표현한 소설로, 개인의 체험과 역사적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야기는 몰인정한 대구의 변호사 집에서 겪게 되는 수모와 부산의 변호사 집에서 마주한 원 거주민의 멸시와 천박하고 경솔한 그들의 태도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가는 전쟁의 잔혹성과 폭력성, 좌절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전쟁과 같은 상황이 개인의 윤리와 사람 사이의 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피난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의 일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나’의 가족을 두고 ‘거지 떼’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몰인정한 노파로부터 ‘황순원 가족’이 수모를 겪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세 들어 사는 집의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여 거적넙으로 임시 변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대구에서 ‘황순원 가족’의 상황이 매우 처절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세 든 집에서 쫓겨 나갈 것을 걱정하는 ‘나’의 아내에게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티’ 받을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원 거주민의 천박하고 경솔한 태도를 알 수 있군.
- ④ ‘황순원’으로 명명된 ‘나’와 그의 가족이 ‘부산으로 흘러 내려’ 오는 피난의 상황을 통해, 자전적 서사의 형식을 활용하여 역사적 현실을 작가 개인의 경험과 연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가 처녀들의 시선에 대해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차가운 멸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 ‘황순원’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4001-0021]

3. 다음은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의 어구로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소설을 읽고 난 다음 제목이 왜 ‘곡예사’인지를 생각해 보다가 ‘곡예’라는 어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어휘의 뜻을 살펴보니, ‘줄타기, 곡마, 요술, 재주넘기, 공 타기 따위의 연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과, ‘아슬아슬할 정도로 위태로운 동작이나 상태.’라는 뜻이 있었다. ‘황순원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살 집은커녕 남루한 공간에서 쫓겨나거나 방을 어서 비울 것을 강요받는 등 살아가는 데 있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목을 ‘곡예사’로 지은 것이 아닐까 싶다.

—<조 건>—

‘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되, 어휘 뜻풀이를 참고할 것.

[수특 37p, 해설 7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고구려 평강왕 시절 사냥꾼 온달은 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날 정치적 이유로 궁을 쫓겨나 암자로 가던 공주는 어려서부터 들어 왔던 온달을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기를 청한다. 온달은 공주가 꿈속의 여인임을 알게 된다. 온달과 혼인한 공주는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였고, 온달도 열심히 노력하여 뛰어난 무공을 지니게 된다. 장수가 된 온달은 신라군이 국경을 침범하자 자처하여 싸움터에 나갔으나 죽음을 맞이한다. 부하들이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공주가 죽은 남편을 찾아온다.

공주: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닫던 벌판이라 하나,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다.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합시다. 자, 돌아가십시다. (손짓을 한다.)

의병장들, 관 뚜껑을 닫고 관을 올려놓은 받침의 채*를 감는다.

공주: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공주: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살살이 가려내어 목을 베리라. (공주, 움직인다.)

공주, 시녀, 관, 군사들, 서서히 퇴장.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장수 1: (부장에게) 공주의 노여워하심이 두렵습니다.

장수 2: 필시 무슨 기미를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장: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장수 3: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부장: 어떻게 알았을까? (둘러보고) 너희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금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는 생각 말라.

장수들: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부장: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투구를 벗는다. 머리를 쳐했다. 피가 배어 있다.)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이토록 신라 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음험한 웃음)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장수들: (비위 맞추는 너털웃음)

부장: ㉠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략)

공주, 비(婢) 뒤를 따른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기척. 장교, 군사 여럿 등장. 들어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다가 다시 나온다.

대사: (장교를 알아보고) 오, 당신이군. 웬일이시오?

공주: 웬일인가?

장교: 왕명을 받들어 공주를 모시러 왔소.

공주: 나를?

장교: 그러하오.

공주: 나는 여기서 살기로 했느니라.

장교: 돌아오시라는 분부시오.

공주: ㉡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돌아가서 그렇게 여쭙어라.

장교: 아니 됩니다.

공주: 무엇이러? 네 이놈. 네가 실성을 했느냐?

장교: 실성한 것도 아니오.

공주: 아니 이놈이…….

장교: 온달 장군이 돌아가신 이 마당에 공주는 궁을 지키지 않고 왜 함부로 거동하셨소?

온모(온달의 모친): ㉢ 무엇이? 온달이, 온달이…….

장교: (그쪽을 보고 웃으며) 모르고 계셨습니까? 온달 장군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모: (쓰러진다. 비, 공주, 붙든다.) 온달이, 온달이…….

공주: 이놈, 네 이 무슨 짓이냐? 네가 어떻게 죽고 싶어서 이다지 방자하냐?

장교: 방자? (결결 웃는다.) ㉣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시오? 온달 없는 공주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오?

대사: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장교에게) 지나치지 않은가?

장교: 가만히 비켜 서 있거라.

대사: 오!

장교: 아니, 이놈을 끌어가라.

병사들 일부, 대사를 끌고 퇴장.

장교: (공주에게) 자, 걸으시오.

공주: 내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장교: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공주: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냐? 정 그렇다면 근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장교: 정 안 가지겠소?

공주: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 내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들은 체를 앓고) 정 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 오라

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공주: 어머니.

장교: 편하게 해 드러라.

병사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서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눕는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2, 큰 비단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싼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儀典)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대사: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남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밝은 진홍색 배자와 성성한 백발이 강하게 대조되게, 날이 저물 무렵, 이 조금 전, 병사들의 퇴장 무렵부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 흰 눈, 진홍색 배자, 백발이 이루는 색채의 덩어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을. 온모 소리는 없이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표정.

온모: (얼굴을 약간 쳐들어 눈발을 보며) 눈이 오는군…… 오 늘은…… 산에서…… 자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는구? (계속 내리는 눈발 속에)

- 막 -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 채: 가마, 들것, 목도 따위의 앞뒤로 양옆에 대서 매거나 들게 되어 있는 긴 나무 막대기.

[24001-0023]

2. ㉠~㉣의 연기에 대해 윗글을 공연하려는 연출자가 배우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당당한 태도와 자신만만한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② ㉡: 체념하는 듯한 표정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③ ㉢: 큰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리는 동작과 함께 연기해 주세요.
- ④ ㉣: 공주를 똑바로 보면서 비아냥대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연기해 주세요.
- ⑤ ㉣: 분을 삭이고 상대를 타이르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연기해 주세요.

[24001-0022]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공주는 온달의 죽음이 평양성에 있는 반역자와 관련이 있다고 짐작하였다.()
- (2) 부장은 자신을 돌봐 주는 높은 분이 있다고 말하며 장수들의 동요를 막으려 하였다.()
- (3) 대사는 장교를 도와 공주에게 순순히 왕명을 따라 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24001-0024]

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감상 활동 결과의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보 기>—

<감상 활동>

· **목적:** 현대 희곡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온달 설화를 모티프로 삼아 재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원작을 계승한 내용과 새롭게 상상으로 삽입한 내용을 파악하여,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 **‘온달 설화’의 전체 줄거리:** 고구려 평강왕은 어린 공주에게 농담으로 미친한 신분의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놀렸는데, 공주는 성장하여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궁에서 나와 온달과 혼인하였다. 공주는 정성껏 남편을 내조하였고, 뛰어난 무공을 지니게 된 온달은 장수가 되었다. 온달은 외적을 물리쳐 공을 세우고, 이 일로 평강왕은 온달을 사위로 인정했다. 신라군이 국경을 침범하자 온달은 신라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 전쟁터로 떠났다. 그러나 온달은 전투 중 신라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고, 부하들이 온달의 장례를 지내려는데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공주가 와서 관을 쓰다듬으며 생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돌아가라 하자 관이 움직여 장사 지냈다.

· **감상 활동 결과:** 이 작품에는 설화와 마찬가지로 온달과 공주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되지만 예기치 못한 온달의 죽음으로 영원히 이별하는 사건이 제시되는데, 이는 (㉠) (이)라는 주제를 계승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설화와 달리 (㉡) 이/가 추가되어 있다. 이는 공주의 억울한 죽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권력의 암투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의 비극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_____

㉡: _____

[수특 42p, 해설 8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럴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야경꾼: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24001-0025]

1. 작품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왜’라는 의문 부사를 사용한 물음의 표현으로 시를 시작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분개’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을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과 조응한다.()
- (2) ‘나’는 뒤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주체이자, 그 행위들에 대해 성찰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 (3) ‘조그마한 일’은 부정한 권력의 전횡을 상징하는 ‘왕궁의 음탕’과 대조되는 말로, 약자들의 소극적 저항을 의미한다.()
- (4) 배타와 한정의를 의미를 드러내는 보조사 ‘만’의 사용은 자신의 ‘분개’가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라는 점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24001-0026]

2. <보기>를 참고할 때,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는 이 작품이 창작되던 1965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잘 담겨 있다.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 민족 구성원 저마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독재를 끝내자는 4·19 혁명은 온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으며, 군사 정변을 통해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빌미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억압하였다. 아울러 한·일 협정 체결이나 월남 파병 같은 중요 사안들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강행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의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던 소수를 제외한 시민 대부분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젖어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 ①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붙잡혀 간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게 된 이에 해당할 것 같아.
- ② 권력층이 ‘자유를 이행’하려는 소수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인 의지로 ‘월남 파병’을 강행했기 때문에 화자가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던 것 같아.
- ③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했던 말은 화자에게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
- ④ 화자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두고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
- ⑤ 화자는 ‘바람아 먼지야 풀아’라고 호명한 대상에게 ‘나는 얼마큼 적으냐’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 같아.

[24001-0027]

3. <보기>는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시구를 밑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학생: 여러분, 지난주 문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문학 작품에는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기 마련이란 것이었지요. 저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라는 시구를 통해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는 시구의 내용을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당시의 물가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 ㉠ : _____

- ㉡ : _____
